

완전 생초보의 주식투자 입문기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강병욱 지음

샘플북

강병욱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 한화증권, ING 베어링스 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Ubion 경영연구소 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전문교수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하우투스탁과 K채널의 대표강사 및 MC이기도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자산관리 강의를 하였고, KBS <실속TV 주부경제학> 증권전문강사, 한국경제 와우TV <재미있는 증권교실>, <생방송 개미천국>, <My Fn Manager>, <증시최전선-뉴욕과 서울>, <한밤의 증시카페> 등 다수 프로그램 진행, TV Seoul <생방송 서울> 경제해설위원, Metro Seoul <주간 증시 전망대> 기고, WOW-Pass 금융교육원에서 자산관리업무 및 파생상품 강의 등 증권업무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시장과 투자에 대한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튼튼한 지식과 마인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투자전략편》, 《저는 기업분석이 처음인데요》, 《저는 차트분석이 처음인데요》, 《행복한 투자자》, 《강병욱의 전략적 주식투자》, 《내 사주에 재물운이 있을까?》 등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 샘플북(비매품)

초판 1쇄 발행 2010년 10월 20일

개정2판 1쇄 발행 2020년 01월 06일

지은이 강병욱

〈알려드립니다〉

1. 이 샘플북은 책을 소개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비매품입니다.
2. 본 책은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 본 책은 2020년 개정판으로 출간시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완전 생초보의 주식투자 입문기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강병욱 지음

기본편

개정판에 붙여



작은 돈이라도 굴려야 보배

일상화된 저금리,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저성장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상황, 가계부채에 짓눌린 내수시장의 침체, 수출경기 부진, 유로존 위기의 일상화….

2008년 붙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일상적으로 들어오던 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노멀 **New Normal**, 즉 새로운 표준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낮은 기대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좀 더 위험한 투자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위기탈출을 위한 정책공조 수단으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어놓은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노멀은 시간이 지나면 포스트 뉴노멀 **Post New Normal**, 즉 진정한 표준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2015년이 그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표준이 바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 환경이 바뀔 때,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와 산업, 기업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기업가치가 우수한 주식을 골라 장기투자하는 것이 주식투자의 기본인 겁니다. 그 기본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벗이 바로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입니다.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는 2010년에 출간된 이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64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도는 물론이고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바뀌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고,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은 법규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담아냈으며, 저금리가 일상화된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투자환경 요소 중 홈 트레이딩시스템^{HTS}의 변화 내용과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주식투자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책을 냈을 때 마음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이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들이는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길잡이를 해주는 좋은 친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2015년 7월

경영학 박사 강병국

머리말



사람들은 왜 주식투자를 할까요?

수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할까요?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왜 좋을까요?

우선 저축만 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이자율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장독 묻어놓듯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만족스럽게 불어나던 시대와 달리, 이제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점점 저축 외의 다른 수익 모델에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부가적인 소득이 절실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투자와는 달리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주식투자는 누구에게나 열린 시장이 되어줍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합리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성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시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금융위기는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매우 오랫동안 저금리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 영업에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营业을 확장하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그 비용이 사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금융규제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1980년대 이후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누리는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서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위기의 발생과 해결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는 위험을 부담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리세요. 자신의 위험수용 정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기본도 공부하지 않은 채 시장이 파 놓은 심리적 함정에 빠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펄떡이는 생물입니다

주식시장은 매분 매초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결정체인 주식시장이 세상과 함께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생물과도 같은 주식시장을 매일 살피지 않으면 언제 괴물이 되어 내 뒤를 덮칠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수시로 바뀌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서로 연계되어 움직이는 지금 이 시대에 투자자들이 수집하고 이해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지요. 성공적인 주식투자는 이러한 정보들을 제대로 아는 것,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가는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늘 주시하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사려 깊은 나침반이 되어줄 길잡이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내용으로 투자의 정도(正道)를 걷게 해줄 것입니다. 이 책을 감히 주식투자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주식에 대해 알고려고 하는 당신에게 마음을 담아 권하고 싶습니다.

안내자가 아니라 손잡고 함께 걷는 동행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 책은 대체로 너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다루거나 너무 심화된 내용까지 쏟아 부으려고 하여 마땅한 교재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기초적인 내용은 정확히 짚고 전문적인 내용은 필요한 것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애썼습니다.

우선 초보 투자자들에게 필수 프로그램인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컴퓨터를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지요. 그런데 실은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키보드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서 어려운 이유가 더 크다고 합니다. 즉, 기본적인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구의 활용은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경제를 이해하고 시장을 판단하는 법,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업을 찾아내고 그 산업 내에서 주도적인 기업을 찾아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입문서에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책에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갑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그래프 분석방법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은 다가가기 힘든 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도 기본개념과 실제 매매방법을 꼼꼼하게 가르쳐 투자자 스스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며 무작정 지름길을 안내하기보다, 곧고 긴 길을 택하고 초보의 마음으로 굽이굽이 함께 오르막길을 오르는 책입니다.

한 걸음씩, 조금해하지 말고 투자의 길을 걸으세요



매일 작게는 5조 원, 많게는 10조 원 이상의 엄청난 돈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은 돈이 흘러가는 아주 큰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 누구든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길어갈 수 있듯, 주식시장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맨몸으로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공투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길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투자자가 기본을 탄탄히 익혀 성공투자의 기쁨을 맛보길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신 한빛비즈 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열심히 작업해주신 권미경 과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에도 곁을 지켜주고 격려해준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10월

경영학 박사 강병국

주식투자, 어떻게 입문할까?



그야말로 생초보,
주식이 무엇인지부터
속 시원히 알고 싶다면,
1장 기초부터
따박따박 시작하세요!

이쯤 되면
고수가 될 준비가 되었다,
중고급 단계로 가기 위한
막판 스퍼트!
6장 고수 따라잡기로
투자자 레벨업!

나름 기초 지식도 있고
계좌도 만들었으니
매매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2장 HTS를
다운 받으세요!

기술적 분석에
접근하고 싶지만
차트 보는 법도 아직 모른다면,
5장 차트에 대한 기본부터
탄탄히 하세요!

준비는 되었는데
경제를 잘 몰라서
시장 파악에 껌껌하다면,
3장 주식시장 보는 법은
꼭 알고 가세요!

경제야 평소 닭아둔
상식이지만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지 막막하다면,
4장 기업분석하는 법은
필수로 짚고 가세요!





1.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가장 밑바닥 스타트! 주식입문의 입문

주식투자를 위해 무작정 활용법만 따라 하는 것이 과연 초보 투자자들에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많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좋은 걸까요? 이 책은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초 지식부터 딱딱딱딱 가르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2. 동병상련 생초보 주인공의 공감백배 입문기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피 같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이런 초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책은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생초보 일광 씨를 따라가면서 함께 질문하고 배우며 진정한 투자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3. HTS를 강력한 무기로 삼는 법

다른 책들과 달리 HTS로 매매하는 법, 차트 보는 법 등을 가르치는 데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HTS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선생님이자 정보창고입니다. 초보자일수록 HTS를 120% 활용해야 합니다. 이 책은 HTS 활용법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든든한 투자 무기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4. 숲을 이해하는 망원경과 나무를 분석하는 돋보기를 쥐어주는 책

투자법을 빨리 배운다고, 또는 당장 얼마를 번다고 해서 주식에 성공적으로 입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파악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이어가는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단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을 길러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5. 초보자에게 딱 적절한 설명과 예시,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퀴즈

초보자들에게는 주식 용어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말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최대한 쉬운 말과 예시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 장의 시작에서는 주인공의 리얼한 성장 스토리를, 장의 끝에서는 재미있는 퀴즈를 통한 레벨업 체크를 하여 주식을 흥미롭게 배워가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개정판에 붙여	004
머리말	006
주식투자, 어떻게 입문할까?	010

제1장 기초 이해하기

일광 씨의 Grow Up 들어갑시다, 주식입문의 입문	023
---------------------------------------	-----

01. 주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돈 버는 지식을 알기 전의 지식	026
증권과 주식이 다른 건가요?	026
솔직히, 주식이 뭔가요?	027
어떤 회사의 주식이든 거래할 수 있나요?	029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무엇인가요?	030
주식 플러스 지식 주식회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032

02.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식의 종류	034
주식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한가요?	034
주주가 되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036

03. 주식은 어디서 어떻게 거래하나요? 주식시장, 종합주가지수, 주식거래의 구조	038
주식시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038
종합주가지수를 왜 보라는 건가요?	040
주식은 어떻게 거래되나요?	041

시장관리자가 주식시장의 거래에도 관여하나요?	042
04. 제가 직접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직접투자, 간접투자	045
직접투자할까요? 간접투자할까요?	045
왜 굳이 직접투자를 하나요?	046
주식 플러스 지식 간접투자의 대표적인 상품, 펀드	048
일광 씨의 Level Up	051
투자 원칙 새기기 이제 막 주식투자를 시작하려는 당신의 자세	053

제2장 매입 준비하기

일광 씨의 Grow Up 당신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059
01. 당신의 투자성향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투자성향 파악하고 금융상품 선택하기	062
투자성향 체크는 필수 자기진단	062
투자위험도에 따라 금융상품도 달라집니다	064
02. 어떤 증권사가 좋을까요? 증권사 선택하고 나의 첫 주식계좌 만들기	066
증권사에 대한 적절한 상식	066
수수료의 유혹	068
주식을 거래하는 4가지 방법	069
계좌는 어떻게 만들까요?	072
03. 집에서 주식투자 어떻게 하나요? 홈트레이딩시스템 HTS	074
HTS를 다운 받으십시오	075
주식시세표를 살펴봅시다	077
04. HTS를 120% 활용하고 싶어요! HTS 최적화, 계좌관리	083
자신에게 맞는 화면을 만드세요	083
계좌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085
주식 플러스 지식 하루에 30분 HTS 살펴보기	088

05. 시간마다 주문이 다르다고요? 주식시장의 시간 구분, 매매원칙, 단일가매매제도	090
주식시장은 몇 시에 열릴까요?	090
매매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092
단일가매매제도를 활용하세요	094
06. 주식매매 주문, 어떻게 할까요? HTS를 통한 매매주문	095
주문 필수 용어들이 있습니다	095
주식 플러스 지식 모바일기기에서 주식투자하기	099
07. 주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요? 주문방법의 종류	107
주문방법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108
08. 주식을 나눠서 사고팔라고요? 분할매수, 분할매도	111
분할매수와 분할매도	112
09. 미수매매는 쪽박의 지름길! 미수매매, 신용매매	115
위험한 주식	115
계좌잔고, 왜 급변동할까요?	117
일광 씨의 Level Up	120
투자 원칙 새기기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새겨 넣을 10가지	122

제3장 시장 파악하기

일광 씨의 Grow Up 컴퓨터를 등지고 시장을 바라보세요	129
01.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나요? 하향식 분석, 상향식 분석	132
기본적 분석	132
02.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도 오르나요? 경제성장률과 주가	136
GDP를 보고 경제성장을 알아내는 법	137

03. 경제지표를 보면 주가가 보이나요? 경제지표와 주가	139
경기종합지수는 주가와 동행합니다	139
설문조사도 지표가 됩니다	141
04. 경기순환을 알면 주가가 보인다구요? 경기순환과 주가	144
경기국면별 투자자의 전략은 다릅니다	144
05. 은행예금 VS 주식투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자율과 주가	147
이자율은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프리미엄	147
주가 등락의 사후보고서 금리	150
06. 수출이 증가하면 주가도 상승하나요? 무역수지와 주가	153
무역수지와 주가	153
07.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을 사라던데요? 환율과 주가	155
환율과 무역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156
환율과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157
주식 플러스 지식 무엇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159
08. 물가와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물가와 주가	161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	162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	163
인플레이션을 알아보는 물가지수	164
09. 돈이 많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통화량과 주가	166
통화량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66
통화량 변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167
10. 원자재가격과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원자재가격과 주가	168
원자재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169
일광 씨의 Level Up	171
투자 원칙 새기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제뉴스 10가지	174

제4장 종목 선정하기

일광 씨의 Grow Up 당신은 이미 모든 것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83
01. 가치투자가 정확히 뭔가요? 가치투자, 저평가 종목 찾기	186
진정한 가치투자는 장기간 복리수익을 노리는 것	187
02.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하는 걸까요? 기업의 능력, 주력 상품, 재무제표	190
기업의 능력을 파악하세요	190
기업의 주력 상품을 확인하세요	191
기업의 재무제표는 필수입니다!	193
03.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포괄손익계산서	194
영업이익을 꼭 확인하세요	195
04.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재무상태표	198
유동자산의 규모를 살펴보세요	199
비유동자산에서는 감가상각비에 관심을 가지세요	199
유동부채의 규모를 꼭 확인하세요!	200
증자 유무를 확인하세요	201
자본잉여금을 통해 무상증자 가능성을 살펴보세요	202
05. 현금흐름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현금흐름표	203
기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203
06. 재무비율을 통해 종목을 선정한다고요? 재무비율	205
유동성비율	207
안정성비율	208
수익성비율	210
활동성비율	211
성장성비율	213
07. 경영 성과가 좋은 종목은 어떻게 찾나요? 자기자본이익률 ROE	214

ROE의 함정	215
08. 이익가치가 높은 종목은 어떻게 찾나요? 주가수익비율 PER	218
PER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220
PER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21
PER로 주가를 예측해봅시다	222
09. 현금흐름이 좋은 종목은 어떻게 찾나요? 이브이에비타 EV/EBITDA	224
EV와 EBITDA의 의미	225
EV/EBITDA에도 함정이 있을까요?	226
10.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은 어떻게 찾나요? 주가순자산비율 PBR	227
PBR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29
PBR을 이용한 투자전략	231
11. 매출가치가 높은 종목은 어떻게 찾나요? 주가매출액비율 PSR	233
PSR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34
PSR을 이용한 투자전략	236
12. 종목관리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HTS로 종목관리하기	238
일광 씨의 Level Up	250
투자 원칙 새기기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원칙 10가지	254

제5장 차트 분석하기

일광 씨의 Grow Up 주식은 시간여행입니다	259
01. 왜 차트를 알아야 하죠?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	262
차트를 통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62
기술적 분석의 논쟁	263
기술적 분석은 왜 유용할까요?	265

02. 봉차트는 무엇인가요? 봉차트, 봉차트의 종류, 봉차트의 구조	270
양봉과 음봉의 의미	270
03. 봉차트로 매수세를 안다고요? 매수세를 예고하는 봉차트의 패턴	272
주가상승을 예고하는 봉 패턴	272
주가하락을 예고하는 봉 패턴	275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이루는 봉 패턴	277
04. 추세선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선	282
추세선으로 매매전략을 세워봅시다	283
05. 이동평균선으로 주가를 알 수 있다고요? 이동평균선	286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일까요?	286
이동평균선으로 매매전략을 세워봅시다	288
06.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주가 분석방법	294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주가를 분석해봅시다	294
07. 매매시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시점 포착	299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매매시점을 포착해봅시다	299
08. 패턴분석으로 매매시점을 찾는다구요? 반전형 패턴, 지속형 패턴	303
추세가 바뀌는 반전형 패턴	303
추세를 이어가는 지속형 패턴	311
09. 그 주식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나요? 거래량으로 세력 분석하기, 역시계곡선	315
거래량의 움직임으로 주가를 예측합니다	315
역시계곡선으로 매매전략을 세워봅시다	317
10. 그 주식을 누가 사고 있나요? 거래주체로 투자가치 분석하기	320
거래주체로 가치를 분석합니다	320
11. 보조지표는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나요? 보조지표 활용	323
추세분석지표 MACD	324

모멘텀분석지표	325
변동성지표	328
시장강도분석지표	330
12. 파동이론으로 투자시기 예측이 가능한가요? 엘리어트 파동이론	333
파동의 상승과 하락	334
13. 다우이론으로 투자시기 예측이 가능한가요? 다우이론	337
시장의 6가지 국면	338
일광 씨의 Level Up	342
투자 원칙 새기기 주식 매수시점을 결정하는 원칙 10가지	346

제6장 고수 따라잡기

일광 씨의 Grow Up 진짜 고수가 될 자신이 있나요?	351
01. 배당투자자 and 장기투자자는 어떻게 하나요? 배당투자, 장기투자	354
주가와 배당수익률은 반대로 갑니다	354
장기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355
02. 파생상품과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파생상품과 주가의 관계	359
파생상품이 무엇일까요?	359
선물계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363
03. 주가지수선물이 무엇인가요? 주가지수선물	367
주가지수선물을 만드는 방법	367
선물의 특징	369
04. KOSPI200지수선물은 어떻게 매매되나요? KOSPI200지수선물 매매	372
KOSPI200지수선물의 매매	372

05. 주가지수선물과 프로그램매매법을 알려주세요! 주가지수선물과 프로그램매매	378
차익거래를 이해합시다	378
프로그램매매를 활용하세요	382
프로그램매매 규제제도	384
06. 옵션이란 무엇인가요? 옵션거래, 콜옵션, 풋옵션	386
권리를 사고파는 옵션거래	386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	387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	389
프리미엄의 구분, 내재가치와 시간가치	390
옵션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393
07. 옵션은 어떻게 거래되나요? 옵션거래 방법	394
옵션거래의 방법	394
08. ELW가 무엇인가요? 주식워런트증권 ELW	398
ELW의 특징	398
ELW 종목 선택 시 주의할 점	400
09. ETF가 무엇인가요? 상장펀드지수 ETF	401
ETF의 특징	401
ETF의 장점과 단점	402
ETF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403
일광 씨의 Level Up	409
투자 원칙 새기기 주식 매도시점을 결정하는 원칙 10가지	412
찾아보기	416

01



기초 이해하기

주식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주식투자에 안전하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돈을 버는 법부터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돈을 잃지 않는 법부터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주식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지식을 먼저 공부하세요.

이 지식들이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는

단단한 뿌리입니다.

”



들어갑시다, 주식입문의 입문

2014년 하반기, 삼성그룹의 주요 기업들이 공모주를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기업은 삼성SDS와 제일모직이었는데요. 삼성SDS는 공모주 청약 자금만 15조 5,000억 원이 몰렸고, 제일모직은 이보다 더 많은 30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청약경쟁률도 엄청나서 삼성SDS는 139대 1을 기록했고, 제일모직은 19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직장인이 된 일광 씨는 은근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 불편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일광 씨는 경제에 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인문학도로 살아오면서 경제를 모르기도 그럭저럭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되고 보니 대화에 끼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뉴스에서 크게 떠드는 경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만 명이 아는 정보를 나만 모른다는 소외감과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더 이상 평생직장은 없으며 고용불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충고에 압박감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초도 모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어디 서부터 공부해야 좋을까?

선배들의 제일 큰 관심은 재테크나 자산관리입니다. 일광 씨 역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투자에 대해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식투자를 시작할까 생각해봤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작하기에는 뭔가 불안합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볼수록 초보자인 일광 씨는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일광 씨: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요?

증권사 직원: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되어 기업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주식을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광 씨: 그럼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권사 직원: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에도 오히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경기 방어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방어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계속해서 투자를 권하기만 하는군요. 이번에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일광 씨: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은행 직원: 경기가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변동금리상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일광 씨: 그럼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직원: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행 역시 다르지 않네요. 금융기관 직원들은 자산관리에서는 전문가로 꼽히는 사람들이지만, 당연히 자신들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관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결국 초보자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광 씨는 혼자 공부를 하며 주식투자에 입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투자기법만 가르칠 뿐 기초 지식부터 따박따박 배우기는 힘들었습니다. 왜 무조건 투자법만을 가르치려고 할까? 주식투자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광 씨의 손을 잡고 어두운 터널 속을 무작정 따라 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의지해 안전하게 갔지만 더듬더듬 걸으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광 씨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뚫고나갈 수 있도록 손전등 하나와 지도 한 장을 쥐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일광 씨가 문득 고개를 들자 눈앞에 2개의 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곧장 달릴 수 있도록 뻗어 있는 화살표와 한발 한발 내딛어야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때 저쪽에서 직장 동료가 화살표를 따라 달려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 먼저 가 있을게, 나중에 보자구!”

일광 씨는 조심조심 징검다리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커다란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자 슈퍼개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돋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계산기 대신 수북한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광 씨는 다짜고짜 주식투자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물었습니다.

슈퍼개미: 지금 당신의 위험도는 50%입니다.

일광 씨: 네? 저는 주식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야말로 생초보인데, 그럼 위험도가 99.9%는 되는 거 아닌가요?

슈퍼개미: 주식투자를 시작하면 위험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며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확률은 반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단, 스스로 얼마나 배우며 투자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 다른 수많은 문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슈퍼개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았지요.” 일광 씨는 기본부터 제대로 짚어가는 개미투자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돈 버는 지식을 알기 전의 지식

주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증권과 주식이 다른 건가요?

혹시 당신은 증권과 주식을 구분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쉽게 혼동하는 것이 증권과 주식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작정 실전만 따라 할 게 아니라 우선 기초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증권시장부터 출발해볼까요? 기업인들은 늘 돈이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들은 재산을 굴려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업과 개인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낮은 이자에 대규모의 돈을 장기간 빌리길 원하지만, 개인은 높은 이자에 소규모의 돈을 단기간 투자하길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절충해주는 것이 증권제도이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구분	기업이 바라는 점	개인이 바라는 점
이자율	아주 싼 이자로 돈을 쓰고 싶어 함	아주 비싼 이자로 돈을 투자하고자 함
기간	가급적 장기로 돈을 쓰고자 함	가급적 단기로 돈을 운용하고자 함
규모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함	소규모의 자금 여유만 있음

증권이란 돈을 빌리거나 투자한 것에 대해 증거가 되는 문서이지요. 이 증권이 어떤 원리로 기업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걸까요?

첫째, 기업은 증권을 발행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권리를 넣어둡니다. 일반인들은 당장은 별 소득이 없이 보여도 이 권리들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증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둘째, 증권은 소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액면가를 500원이나 5,000원처럼 소액으로 정하면 개인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자금이 모여 거액의 자본화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시장에서 누구나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면서 단기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기간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주식이 뭔가요?

재테크가 일반화되면서 주식이라는 말은 적금만큼이나 흔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주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식이 뭘까요? 주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즉 주식회사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2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누가 경영을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여러 종류의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주식회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거대한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 회사입니다. 이들은 동업자가 되어 자신이 낸 돈만큼 권리와 책임을 나누어 가집니다. 주식이란 주

식회사가 돈을 낸 대가로 발행해주는 증서입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와 액면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식을 몇 주 갖느냐에 따라 주주의 규모도 결정되지요. 예를 들어 회사를 만들면서 자본금 10억 원에 주식 1주의 가격은 1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식은 1만 분의 10억 원 해서 총 10만 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1주씩 사면 주주는 10만 명이 되고, 한 사람이 100주씩 사면 주주는 1,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종류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개인회사 ● 자기가 돈을 내고 스스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내든 손해를 보든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망하면 살림살이라도 팔아 빚을 끝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책임을 무한대로 지는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합명회사 ● 혼자 사업자금을 대는 것이 어려워 돈을 덜 동업자를 끌어들인 회사입니다. 경영도 같이 합니다. 수익을 내면 각자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고 손해를 보면 역시 투자한 비율에 따라 손실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끝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합자회사 ● 한 사람이 돈을 내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만 받고 경영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회사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수익이 나면 나누어주며, 회사가 망하더라도 무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자신이 돈을 출자한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됩니다.

유한회사 ● 아예 유한책임사원들끼리 회사를 차려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누구 혼자 떠난지 않고 서로 자신이 출자한 부분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영어로 Limited Company입니다. 회사명 끝에 LTD라는 말이 오면 유한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현대 경제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입니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 안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갖는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출자를 하지만, 경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의 회사로, 이때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이 맡아서 합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든 거래할 수 있나요?

일광 씨의 선배도 사표를 내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 앞에 어엿한 주식 회사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광 씨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상장회사의 주식**입니다.

그럼 과연 상장회사란 무엇일까요? 상장이란 간단히 말하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장의 영문명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기업을 거래소 목록에 올린다는 뜻이지요. 한국거래소 본관 2층인 증권시장에 가면 벽면에 온통 회사명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 상장회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록에 올라 있는 주식을 **상장주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목록에 오르지 못해 거래가 되지 못하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거래가 필요한 기업은 상장하려고 하겠죠. 기업들은 상장을 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합니다. **기업공개**란 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주식회사에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주식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분산시키는 **구주舊株** 매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분산시키는 **신주新株** 모집 방법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시장에 자신을 공개합니다.

기업공개를 함으로써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행과 같은 간접금융만으로는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데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됨으로써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측면에서는 기업

경영에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기업의 이익을 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기업공개를 하면 주주들의 감시가 이루어지므로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지요.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이 거래되므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공개가 되면 무조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건가요?

주식을 거래하려면 상장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을 공개한다고 해서 모두 상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을 시킨다는 것은 공인된 회사의 주식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나쁜 회사를 상장시키면 국민들의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지요.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조건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우량기업들만 상장시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무엇인가요?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 증資라고 합니다. 이때 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나눠주면 유상증자,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면 무상증자라고 하지요.

■ **유상증자** ■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는 대가로 현금 등을 회사에 입금합니다.

유상증자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에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진 부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진 부류가 상장회사의 대주주 또는 경영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독점해서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가가 상당 부분 오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중가격보다 싸게

나온 유상증자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이 자신의 계좌에 입고될 즈음이면 이미 주가가 떨어지는 낭패를 당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 **무상증자** ■ 기업이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요.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동이 없이 새로운 주식만 발행되는 형식적 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아니라 자본구성을 바꾸거나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실시됩니다.

무상증자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주가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기업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가 1만 원, 발행주식수 100주.

시가총액(시장가격으로 표시된 자본금) = 1만 원 × 100주 = 100만 원.

이 기업이 무상증자를 100%를 하게 되면 ?

발행주식수가 200주로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 = 200주 × ○원이 되지요.

이를 계산해보면 주가는 5,0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상증자를 해도 기업가치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으니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현상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남으로써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의 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증자를 하면 무상증자인지 꼭 확인하고 시장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근대 주식회사는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왜 주식회사 형태를 갖춰야 했을까요? 이는 동서양 간 교역을 위한 해상직항로의 개설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해상직항로가 발견되기 전에 유럽 국가들은 인도나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 육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육로를 이용할 경우 영지와 영지, 또는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기 위해서 통행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의 많은 부분이 통행세로 나가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서양 상인들은 큰돈을 벌려고 통행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바닷길 개척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개척하고 또 어떤 이는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서 동양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지요. 이때부터 수많은 바다 모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닷길을 통해 교역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600년대 배의 모습을! 당시의 배는 나무로 만들고 돛을 올린 범선이었습니다. 그 배에 교역을 위한 각종 물건을 싣고 사람도 태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바닷길을 나선 배가 풍랑이나 해적이랄까 만나면, 모든 것을 잃고 일을 추진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험은 선장에게 있었습니다. 선장은 일반적으로 고용된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교역으로 번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업의 개념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통해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출자한 것을 증명해주는 증서를 발행해줬는데, 그것이 곧 주식입니다.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들은 어떻게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주주들이 투자한 배가 성공적으로 교역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면 수익금에서 자신들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해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배가 한 번의 교역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역에 성공하면, 기존 주주들도 출자한 자본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의 유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때 살펴야 하는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야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주가도 점점 올라갈 수 있지요. 만약 배가 돌아오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하고 그 회사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또한 교역이 일시적으로만 이뤄져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둘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동인도회사에서 선장은 전문경영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장이 자신의 본분을 다해 회사의 이익을 지킨다면 그 회사는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자신의 욕심만을 생각한다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고를 때는 그 회사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가 도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주식의 종류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식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한가요?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략 어떠한 특성을 가진 주식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주식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 **보통주와 우선주** ■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수만큼 기업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집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통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배우겠습니다.

■ **우량주** ■ 우량주는 블루칩^{Blue Chip}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기업에 비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 중에서 실적이나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회사를 지칭합니다.

■ **공모주와 국민주** ■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를 공개모집하는 것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이 더욱 많이 필요해져 공모주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을 국민주라고 합니다. 반드시 공기업만이 국민주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배당이 안정적인 우량기업의 주식을 보급하기 때문에 대체로 공기업이 선정됩니다. 국민주는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됩니다.

■ **가치주와 성장주** ■ 가치주는 실적 등에 비해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성장이 더뎌서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수익이 낮은 편이지만 주가 변동폭도 크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방어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저금리시대가 되면서 장기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 가치주가 부상하기도 했지만,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투자기업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도 짊어져야 합니다.

성장주는 가치주와 반대의 개념으로, 현재가치는 낮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하여 미래의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은 조금씩 바뀝니다. 대체로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는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관련주와 음식료 관련주들이 가치주라면, IT나 반도체, 헬스케어와 같은 신기술 관련주는 성장주에 속합니다.

■ **경기방어주와 경기민감주** ■ 경기방어주는 경기둔감주라고 할 정도로 경기변동에 둔한 주식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변함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력, 가스, 철도 등의 공공재와 의약품, 식료품

등의 생필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경기민감주는 경기변동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큼니다. 자동차, 철강, 항공, 운수, 석유화학, 건설, IT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호황일 때는 선호도가 높아지지만 불황일 때는 시들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 **세력주와 작전주** ■ 세력주는 개인, 기관, 외국인 등의 세력이 한 종목에 집중되면서 주가가격과 시장가격 간에 괴리가 생기는 주식을 말합니다. 작전주는 주가를 조작하여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작전세력끼리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테마주** ■ 개념주 또는 발광주라고도 하는 테마주는 이슈가 되면서 주목받는 주식을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관심을 받기 때문에 거품이 한 번에 꺼집니다. 그러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잡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던 녹색성장주 등 환경 관련 테마주가 이에 속합니다.

주주가 되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중 하나가 주주총회입니다. 기업이 중대한 문제에 놓였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주주들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 극적인 순간이 연출되곤 하지요. 주식을 가지면 드라마에서처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배우면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통주** ■ 기업이 발행한 주식 중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통주는 안정적인 자기자본 조달의 수단이 되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통주는 의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권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보통주를 가지면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1인 1표제가 아닌 1주 1표제이므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경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자본을 낸 사람의 입김이 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지분율은 50%+1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주름잡는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주식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 **우선주** ■ 보통주가 가진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하는 권리란 무엇일까요? 첫째, 배당을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회사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당을 합니다. 이때 보통주를 가진 주주에 비해 배당을 먼저 받는 권리를 갖는 경우, 이를 배당우선주라고 합니다. 둘째,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입니다. 회사가 청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고 잔여재산은 주식수에 비례해서 나누는데, 우선주는 먼저 분배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선주는 무조건 좋은 걸까요?

우선주에 대한 배당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7%의 우선배당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결산을 한 후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먼저 우선주에게 7%의 배당을 주고 남은 이익으로 보통주에게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하, 우선주가 배당에 유리하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난 경우 우선주에게 7%의 배당을 주고 보통주들은 20%의 배당을 받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배당률을 확정해놓지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무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주식시장, 종합주가지수, 주식거래의 구조

주식은 어디서 어떻게 거래하나요?

주식시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주식투자를 하려면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어떤 주식이 거래되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입니다. 각 시장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 **유가증권시장** ■ 현재의 한국거래소 www.krx.co.kr 는 2005년 2월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그리고 선물거래소가 통합된 시장입니다. 당시 증권거래소가 지금의 유가증권시장이 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자기자본이 3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은 증권업협회가 미국의 나스닥시장을 벤치마킹하여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5년 2월 한국거래소로 통합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일반 기업의 경우 3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인 경우 15억 원 이상, 기술성장기업인 경우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아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성장성과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의 규모가 크고 경영 성과도 더 좋은데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코스닥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유망한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기타 주식시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코넥스시장 ● 코넥스(KONEX)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 일정요건을 갖춘 비상장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제3의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코넥스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자본시장으로, 2013년 7월 1일 개장되었습니다.

K-OTC시장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개편한 장외 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 25일 개장했습니다. K-OTC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전화, 컴퓨터(HTS) 등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증권사가 고지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등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OTC시장 ●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은 증권사 영업점에서 매매가 이뤄진다고 해서 점두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거래소 상장이나 K-OTC 지정종목이 아닌 종목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시장들의 차이는 뭘까요? 장외시장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완전히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은 거래소에서 운영하므로 상장회사가 되는 것이고 K-OTC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차이지만, 두 시장은 모두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둘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위험성이 커서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좋습니다. 그만큼 투자자의 자기책임이 중요시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수익을 바라는 만큼 기업의 퇴출 가능성 등 위험도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 투자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왜 보라는 건가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 종합주가지수를 꼭 언급합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왜 중요한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KOSPI)라고 합니다. 코스피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코스닥 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시가총액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 총수에 현재 주가를 곱하여 구합니다.

합니다. 1980년 1월 4일 시점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지수지요.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을 구한 뒤 100을 곱하면 됩니다.



기타 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시다.

코스피200지수 ●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대표기업 200개의 주가를 종합하여 나타낸 지수입니다.

코스닥지수 ● 코스닥종합지수라고도 하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1996년 7월 1일을 기준시점 100으로 놓았으나, 2004년 1월 26일부터 기준지수가 100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우지수 ●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코스피지수처럼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코스피지수와 다른 점은 몇 개의 종목만을 대상으로 값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나스닥지수 ●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같은 미국 나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입니다. 1971년 2월 5일을 기준시점 100으로 놓고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주가지수'라고 치면 주요 주가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9년 11월 4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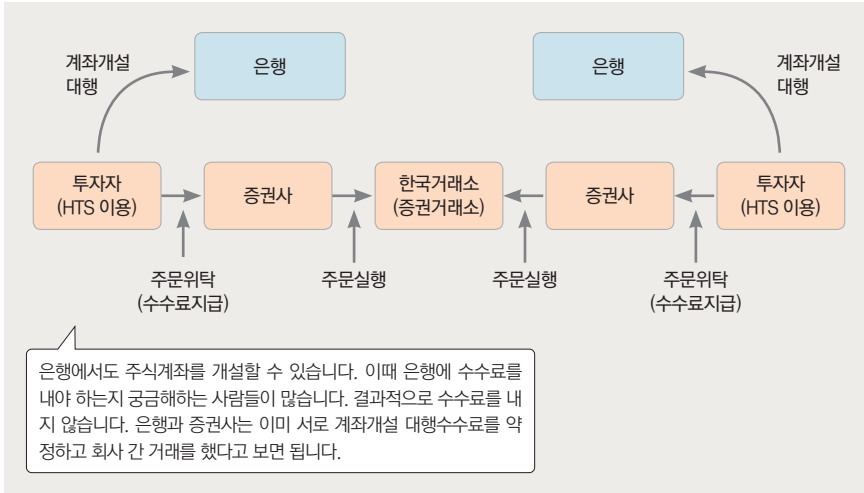


주식투자자라면 종합주가지수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주가의 전반적인 동향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주가지수는 모든 종목의 평균적인 주가흐름을 나타낼 뿐입니다.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개별 종목의 주가는 제 각각의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파악하는 안목과 종목을 고르는 안목을 별도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거래되나요?

이제 주식과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알았으니 주식이 어떤 구조로 거래되는지 살펴볼까요? 상장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전적으로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에서는 회원권을 가진 증권사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직접 증권거래소에 가서 주식을 사고팔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 주식거래 과정 한눈에 보기



사람들이 매일 주식을 사고파는데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없다니, 좀 이상한가요? 일반투자자들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주식거래에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들은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갈 필요 없이, 증권사에 찾아가거나 집에서 간편한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거래를 하면 됩니다.

시장관리자가 주식시장의 거래에도 관여하나요?

주식은 생물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관리가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변해 시장이 충격에 빠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에는 몇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상한가제도** ■ 주식시장에서는 하루에 변할 수 있는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합니다. 더는 오를 수 없는 선과 더는 떨어질 수 없는 선을 각각 상한가, 하한가로 정해놓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주가는 전날 종가(마감 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가격변동폭을 2015년 6월에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가격변동폭이 30%일 때, 전날 종가가 10만 원이었다면 오늘은 30%인 3만 원 내에서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상한가는 13만 원이고 하한가는 7만 원이 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확대되어 왔습니다. 1995년 4월 이전 평균 4.6%의 차등가격제한폭제도에서 이후 가격제한폭이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6%(1995년 4월) → 8%(1996년 11월) → 12%(1998년 3월) → 15%(1998년 12월)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5년 6월에 가격변동폭이 확대되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17년만의 일이 됩니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하루 중 가격의 최대변동폭이 60%에 이르기 때문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한가에 매수해서 상한가에 매도할 경우 하루 동안 거둘 수 있는 수익이 60%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상한가에 매수했으나 주가가 급락해서 하한가에 매도하게 되면 하루 만에 손실이 6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가격변동폭의 확대는 주식시장 가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변동폭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시장의 성숙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제한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가격변동폭이 확대되면 가격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과가 지배적입니다. 즉,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가격변동폭의 확대가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자기책임하에서 신중한 투자를 하게 한

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가격변동폭 제한 자체가 없고, 일본은 상하 50%입니다.

■ **매매거래중단제도** ■ 갖가지 사정으로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CB)가 있습니다.

과거 서킷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단일가 호가접수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체결을 시키지 않고 주문만 받아 놓고 매매가 재개될 때 그 사이 접수된 주문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시켜주는 제도

호가접수를 통해 매매거래가 재개되었던 것이 상하한가 제한폭의 확대와 더불어 3단계로 나뉘어서 운용됩니다.

- **1단계**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20분간 매매 중단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매매 재개
- **2단계**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20분간 매매 중단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매매 재개
- **3단계**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당일 매매 종료

즉, 하루 중에 종합주가지수가 20% 이상 하락하면 그날 주식시장은 즉시 문을 닫게 됩니다.



또 다른 거래중지제도, 사이드카

사이드카(Side Car)는 선물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프로그램매매 체결을 지연시켜 시장을 진정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선물가격이 전날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발동됩니다. 이때는 주식시장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매매호가만 중단됩니다.

제가 직접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직접투자할까요? 간접투자할까요?

주식시장은 정보가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편향되는 정보비대칭의 경우, 대부분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떠안는 문제점입니다. 개인은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좋은 기업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수많은 기업을 다 찾아가서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사를 하러 회사를 찾아간다 치더라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접투자입니다.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를 간단히 구분해볼까요?



■ **직접투자** ■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대상에 대해 분석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간접투자** ■ 개인이 직접 투자대상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전문투자자가 운용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이익을 노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직접투자	간접투자
자산운용의 주체	투자자 본인	투신, 은행 등 기관투자자
투자 결과의 책임	투자자 본인	투자자 본인
투자 및 거래비용	높음	공동투자로 비용 절감
위험관리	취약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

즉, 간접투자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전문가가 전적으로 맡아서 전문가의 판단 아래 투자하는 것입니다. 간접투자라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투자는 대규모의 자금을 전문가 집단이 관리함으로써 투자 및 거래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위험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접투자보다 좋은 것이지요.

왜 굳이 직접투자를 하나요?

그러면 왜 굳이 직접투자를 할까요? 간접투자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간접투자의 대표상품인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펀드매니저는 오로지 자신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많은 유혹과 외압에 흔들려 자신의 이익이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접투자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럼 직접투자의 장점을 콕 집어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직접투자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주가지수 상승률만큼 수익을 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직접 종목을 선정하면 종목의 개별상황이나 가치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수익률이라고 해도 간접투자는 장기간으로 보는 반면, 직접투자는 단기간을 목표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직접투자는 현금성 측면에서 편리합니다. 현금이 필요하면 곧바로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는 투자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빨리 현금화할 수 없을뿐더러, 중도해약을 하면 불이익도 따릅니다.

셋째, 직접투자는 결국 자신에게 정보와 경험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를 하면 본인이 애써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고 머리 아프게 투자의사결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식에 대한 정보수집력도 떨어지고 시장대응력도 키울 수 없지요.

간접투자자로 돈을 잃는다고 해도 결국 직접투자처럼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이 돈을 잃고 책임을 지는데 간접투자자에게는 마이너스 수익만 남고, 직접투자자에게는 정보를 선별하고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과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 남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훌륭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투자는 더 먼 곳을 보고 든든한 투자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의 대표적인 상품, 펀드

펀드는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펀드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큰 자금을 만든 다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매니저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겁니다. 주식의 운용은 펀드매니저가 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전적으로 수익이 달려 있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할 때 자신의 투자성향, 자금용도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펀드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하고 펀드의 종류를 잘 살펴보세요.

■ **채권형 펀드** ■ 약관상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의 최소 편입비율이 60% 이상으로 명기되며, 주식은 일체 편입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식형 펀드** ■ 약관상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의 최소 편입비율이 60% 이상으로 명기되며,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 **주식혼합형 펀드** ■ 약관상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의 최대 편입비율이 50% 이상으로 명기됩니다. 주식시장의 상승효과를 추구하며 분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채권혼합형 펀드** ■ 약관상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의 최대 편입비율이 50% 미만으로 명기됩니다. 채권형 펀드의 보수적인 투자방식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주식투자로 인한 추가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만약 손해를 보더라도 큰 수익을 남기고 싶다면 주식형 펀드에, 수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식으로 적절히 그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형 펀드 내에서도 주식투자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품이 달라집니다.

■ **성장형 펀드** ■ 주식편입비율을 70% 이상 유지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상당한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 **안정성장형 펀드** ■ 주식편입비율 50% 내외인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실세금리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성장형 펀드에 비해 주가상승 시 수익률 상승 폭은 작지만 주가하락 시 급격한 수익률 하락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정형 펀드** ■ 주식편입비율 30% 이내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안정형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신 주가상승기에는 안정성장형이나 성장형에 비해 수익률이 낮습니다.

펀드는 투자스타일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배당주펀드** ■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써 혼합형 펀드의 일종입니다.

■ **가치주펀드** ■ 꾸준한 분석을 통해 내재가치(주가수익비율, 장부가치, 매출액 등)가 높은 주식들을 선정하고 이를 편입시킨 상품입니다. 가치주펀드는 일반적으로 저평가종목에 3~4년 이상의 장기투자로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인덱스펀드** ■ 인덱스^{Index}는 주가지수를 이르는 말이고, 인덱스펀드는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따라 가도록 구성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소극적 펀드^{Passive fund}

라고도 부르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인덱스펀드가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추적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펀드** ■ 펀드매니저의 주관적 판단마저 배제한 채 미리 정해진 매매조건에 따라 자동주문 시스템을 이용해 분할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주식 시장의 등락에 따라 추가 매수와 매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매차익을 누적시키는 것이 시스템펀드의 특징입니다.

■ **펀드오브펀드** ■ 서로 다른 투자목적을 지닌 여러 종류의 펀드에 동시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분산효과가 큰 상품입니다. 주식, 채권, 통화는 물론 운용사별, 국가별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멀티클래스펀드** ■ 투자기간과 투자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하는 것이 멀티클래스 Multi Class 펀드입니다. 하나의 펀드로 운용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일반 펀드와 다르지 않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차이에 따라 펀드별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 상품은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투자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낮게 설정됩니다.



일광씨의 Level UP

01 일광 씨의 여자친구 구슬 씨는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광 씨가 상의도 없이 주식투자를 해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은 딱 질색인 구슬 씨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일광 씨를 극구 말립니다. “그냥 착실하게 적금을 부으면 안 돼?”

자, 일광 씨는 구슬 씨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Answer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니까 공부하면 위험에 맞설 수 있어. 그리고 소액투자부터 시작하면서 경제 공부도 하고 시장 보는 법도 배우고 기업분석도 해서 좋은 종목을 찾으면 돼.”

02 일광 씨는 최근 괜찮은 책을 읽고 출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빛비즈(주)라는 출판사로, 그간 나온 책 리스트를 보니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이쯤이면 앞으로 나올 책들에도 기대가 큼니다. ‘이 정도면 주식을 살만하지 않겠어?’ 일광 씨는 주식회사 한빛비즈의 주주가 되려고 거래소를 찾아갔지만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2가지 이유)

Answer 첫째, 한빛비즈는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주식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03 직장 동료인 한탕 씨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불과 며칠 전 좋은 주식을 샀다고 자랑하던 때와는 판판이네요. 실전에 위풍당당하게 뛰어들었던 초보 투자자였는데, 그새 손실을 보고 만 것입니다.

한탕 씨는 얼마 전 괜찮은 회사가 증자를 하는 것을 보고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증자를 해서 주주도 더 모였으니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주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 때보다 떨어지고 기업가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광 씨는 한탕 씨에게 의기양양하게, 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해줬습니다.

Answer '무상증자'였기 때문입니다.

04 일광 씨가 모처럼 잠을 내서 주식매매를 할까 하고 트레이딩시스템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마침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입니다. 놀란 일광 씨는 주식을 처분하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내려고 해도 주문이 나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시장이 마감할 시간도 아닌데 왜 주문이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Answer 주가가 급격히 폭락할 때는 시장이 간섭하여 매매를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05 일광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열정적으로 시작한 주식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세와 관련 뉴스를 일일이 점검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여자친구인 구슬 씨에게 대신 맡겨볼까 생각해봤지만, 구슬 씨도 초보인지라 걱정이 많습니다. 일광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Answer 우선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면 좋습니다.





이제 막 주식투자를 시작하려는 당신의 자세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경제와 산업을 분석하며 그 속에서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안목을 갖고 언제 어느 때 주식을 매매해야 하는지를 직접 날카롭게 판단하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몸과 마음이 욕심에 젖어 그 판단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장이 만들어놓은 탐욕과 공포의 바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자는 ‘선택적 지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크게 생각하고 불리한 정보는 애써 외면하는 객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시선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스스로 터득한 수많은 경험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되겠지만, 초보자라면 전문가들의 경험으로 간접경험을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실패의 확률부터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흔히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적인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주맹은 물러나세요!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옆 사람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 자신도 벌고 싶은 욕심에 준비도 없이 투자에 나서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꼬박꼬박 넣으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돈을 잃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거 없는 희망은 위험합니다!

주식투자자는 영원한 낙관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라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언제 어떤 상황이든 주가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위험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위험관리란 팔아야 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인데, 시장이 곧 오른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매매를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희망으로 인해 망들여가는 계좌를 끌어안고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포와 탐욕을 버리세요!

주식시장은 IQ가 3,000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리하다는 것이죠. 결국 투자자들은 시장과 싸워야 하는데, 그 시장은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주기도 하고 탐욕에 불타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탐욕에 젖어 시세의 꼭지에 사들이게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공포에 떨며 바닥에 팔아버리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상투에 사고 바닥에 팔아버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만들어가는 감정의 굴곡을 이겨낼 수 있는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투자를 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력을 길러 주식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주식시장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가라는 지표로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즉, 주가의 움직임은 세상의 모든 흐름을 내포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 많은 일들을 모두 알고, 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법칙을 찾을 수는 있습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독서하고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기업은 경영환경에 잘 적응하는 기업, 영업을 잘하는 기업, 그리고 주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의 움직임과 트렌드에 뒤처지지 말고 열심히 연구해 세상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둘째, 발로 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엄청난 정보의 바다입니다. 어떤 정보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내가 몰랐다면, 나는 바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비밀스럽게 다가오는 정보는 특히 그렇습니다. 정보가 지니는 특성은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발로 뛰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주식만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데 확인도 안 되는 정보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셋째, 매번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우리 속담에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지요. 투자자들은 큰 수익이 나면 모두 자신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잃으면 온갖 핑계로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문을 낸 사람은 본인이고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남 탓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돈과 건강만 잃을 수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언제, 얼마에, 당시에 어떤 판단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했는지 등을 기록하다 보면 성공과 실패의 경우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경우는 발전시키고 실패의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신의 기록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02



매입준비하기

주식매매를 위한 사소한 준비부터
기초 지식과 실전 연습까지,
매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주식계좌는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까요?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는 걸까요?

초보자라면 프로그램을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HTS는 당신의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훌륭한 선생님이자 정보창고입니다.

”



당신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자, 이제 주식의 기초를 확실히 알았으니 투자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런데 당신의 위험도는 여전히 50%일까요?

투자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험도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갖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경우 나는 과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위험에 부딪치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알 수 없으니까요.

일광 씨는 자신이 나름 위험 앞에 의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겁쟁이라 큰 위험에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슈퍼개미: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일광 씨: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마련한 원룸 전세금이 9,000만 원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낡은 중고차도 있네요. 지금 팔면 3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슈퍼개미: 현금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일광 씨: 제가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이라.... 아직 적금 같은 걸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슈퍼개미: 그럼 당신의 위험에 대한 능력은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알아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 능력보다 크다고 착각하면 위험에 맞서려는 무모한 태도를 보이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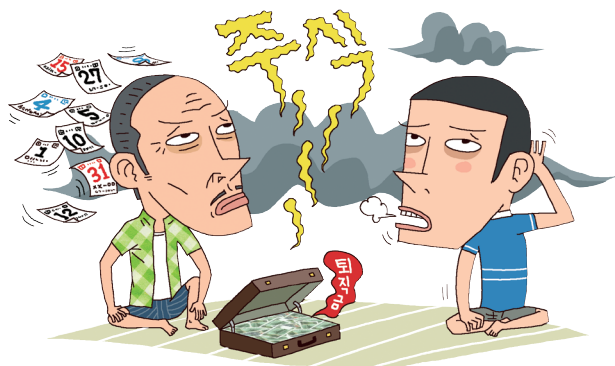
좋은 주식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안 되는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지수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 주식을 팔지 않는 것도 위험에 맞서는 것입니다.

슈퍼개미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는 일광 씨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파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란 손해를 봤을 때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광 씨는 얼마 전 아버지와의 대화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일광 씨가 주식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자 아버지도 퇴직금을 투자해보겠다고 나서셨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은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 비해 엄청난 거잖아?’ 일광 씨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로 지출한다고 해도 4년 정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게다가 만약 주식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추가로 4년은 더 놀고먹을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 당장이라도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높은 걸까요? 아버지가 고위험에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아버지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1억 원이 전 재산입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이 퇴직금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위험 인내력을 알게 된 일광 씨는 당장 아버지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아주 소액의 현금만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자고 회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슈퍼개미: 그럼 다시 확률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당신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일광 씨: 그것 역시 50% 아닐까요? 제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버는 거고 주가가 내리면 돈을 잃는 것이니 확률은 반반이겠조.

일광 씨는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슈퍼개미: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지부동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그대로 유지되면 본전일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매매수수료가 들어갔으니 그만큼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일광 씨: 아, 수수료! 그렇다면 확률은....

슈퍼개미: 주가가 오를 경우 3분의 1, 주가가 내릴 경우 3분의 1, 주가가 가만히 있을 경우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 확률은 3분의 1 정도인 셈이지요. 이제 그 3분의 1 확률로 뛰어들어볼까요?

투자성향 파악하고 금융상품 선택하기

당신의 투자성향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투자성향 체크는 필수 자기진단

일광 씨는 주식투자 시작에 앞서 자신의 투자성향을 깨달았습니다. 투자성향을 안다는 것은 실제로 투자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절차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투자성향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의 주식거래의 구조에서 배웠듯이,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 통장으로는 주식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에 찾아가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직원은 ‘투자정보확인서’라는 간단한 설문지를 줍니다. 증권사에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알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의 성향을 알고 위험 수준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투자권유를 할 수 있지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자신의 투자성향을 알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는 HTS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풀어볼까요?

▼ 투자정보확인서 등록

1 [0755]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파생상품(선물/옵션, ELW, ETF 등) 매매를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움증권에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조의2 적정성의 원칙 에 따라 투자성향 진단을 하셔야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 본 설문지 **미작성 시 선물/옵션, ELW, 파생상품 ETF, ETN 신규주문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파생상품(선물/옵션, ELW, 파생상품 ETF, ETN)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분류	선택내역
PART1	연령대	<input type="radio"/> 19세이하 <input type="radio"/> 20세~40세 <input type="radio"/> 41세~50세 <input checked="" type="radio"/> 51세~60세 <input type="radio"/> 61세~64세 <input type="radio"/> 65세이상
	투자가능기간	<input type="radio"/> 6개월미만 <input type="radio"/> 6개월이상~1년미만 <input type="radio"/> 1년이상~2년미만 <input type="radio"/> 2년이상~3년미만 <input type="radio"/> 3년이상
	투자경험 (종류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적금, 국채, MMF, CMA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 ELS <input type="checkbox"/> 신용도중간회사채, 원금일부보장ELS, 혼합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신용도낮은회사채, 주식, 원금비보장ELS,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신용거래등
	투자지식수준	<input type="radio"/> 매우낮은수준 <input type="radio"/> 낮은수준 <input type="radio"/> 높은수준 <input type="radio"/> 매우높은수준
	투자비중	<input type="radio"/> 10%이하 <input type="radio"/> 10%초과~20%이하 <input type="radio"/> 20%초과~30%이하 <input type="radio"/> 30%초과~40%이하 <input type="radio"/> 40%초과
	수입원	<input type="radio"/> 현재 일정한 수입, 향후 유지나 증가예상 <input type="radio"/> 현재 일정한 수입, 향후 감소나 불안정 예상 <input type="radio"/>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음, 연금이 주수입원
	감수손실수준	<input type="radio"/> 무조건 투자원금은 보전 <input type="radio"/> 최소한의 손실감수 <input type="radio"/> 일부의 손실감수 <input type="radio"/>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감수
PART2	투자목적 / 선택	<input type="radio"/> 안정형 <input type="radio"/> 안정추구형 <input type="radio"/> 위험중립형 <input type="radio"/> 적극투자형 <input type="radio"/> 공격투자형
기타	파생상품 투자기간	<input type="radio"/> 경험에 없거나 1년 미만 <input type="radio"/> 1년 이상 3년 미만 <input type="radio"/> 3년이상

투자성향등록

앞의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 증권사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트1을 체크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화되어 나온 결과와 파트2에 자신이 체크한 것을 비교하여 더 낮은 수준의 투자성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가능기간이 길고 투자경험이 많으면서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더 높은 투자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설문항목에 대해 응답을 하고 나면 다음처럼 자신의 투자성향이 나오게 됩니다.

▼ 투자정보확인서 결과

10757

투자자정보확인서 조회

고객님께서 작성해주신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대한 결과내용입니다.

조회

구분	문류	응답결과
PART1	연령대	41세~50세
	투자가능기간	3년 이상
	투자경험	ELW, 선물옵션,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신평거래등
	투자지식수준	매우높은수준
	투자비중	40%초과
	수입원	현재 일정한 수입, 향후 유지나 증가예상
	감수손실수준	기대수익이높다면 위험감수
PART2	투자목표/성향	공격투자형 1등급
기타	파생상품 투자경험	3년 이상
PART1 결과	84.37점 공격투자형 1등급	PART2 결과 공격투자형 1등급
		<div>고객성향 진단결과</div> <div>공격투자형 1등급</div>

• PART1에 의한 투자성향과 PART2에 의한 투자성향 중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최종 투자성향으로 분류합니다.

투자자 정보확인서 변경

투자위험도에 따라 금융상품도 달라집니다

투자성향에 따라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투자위험도는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한지 확인해봅시다.

▼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구분	초고위험상품	고위험상품	중립형상품	저위험상품	초저위험상품
안정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 불가				
공격투자형					

자신이 중립형으로 분류되었는데 고위험상품이나 초고위험상품에 투자하려 한다면 자신의 능력 이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신평거래를 하려는 경우 공격투자형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유형은 자신의 위험도에

비추어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사로부터 투자위험에 대한 고지를 받고 자신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그만큼 손실에 대한 부담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적극투자형인데 어떤 상품이 적합할까요?

투자위험도에 따라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지 다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저위험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무위험상품을 말합니다. 초고위험상품은 투자 원금의 손실은 물론 추가적인 손실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투자위험도별 금융상품

구분		초고위험상품	고위험상품	중립형상품	저위험상품	초저위험상품
채권		투기등급 포함 (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 (A- 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 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 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 경고종목, 투자 위험종목, 관리 종목	주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증권사는 이렇게 투자위험도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해놓고 고객성향별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위험까지 감수할지 신중하게 고려한 후 투자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증권사 선택하고 나의 첫 주식계좌 만들기

어떤 증권사가 좋을까요?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증권사를 알아봅니다.
2. 증권사 영업점이나 은행을 찾아가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3. 집에 돌아와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정말로 간단하죠? 이때 체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적절한 상식

먼저 증권사를 선택하기에 앞서 증권사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봅시다. 증권사 분류를 알면 자신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위탁매매업 중심의 증권사** ■ 위탁매매, 즉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중개해주는 일을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위탁매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괜찮은 곳을 고르는 팁을 알아두세요. 일단 가까운 증권사가 좋습니다. 주식투자도 편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가

끼이에서 계좌개설이나 입출금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공되는 투자 관련 자료가 얼마나 좋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일반투자자들이 자료의 질을 따져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이 되면 경제신문사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하므로 업종별 각 부문의 베스트, 회사 전체의 베스트 등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투자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급적 수수료가 싼 곳에서 매매하여 비용을 적게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간접투자 중심의 증권사** ■ 자신이 직접투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문가 또는 기관을 통해 간접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펀드 판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증권사들도 위탁매매업을 하지만 아무래도 위탁매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사에 비해 서비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접투자를 하려면 펀드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가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펀드거래도 주식투자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펀드도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수수료가 싼 펀드를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에 대한 설명은 부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자산관리업 중심의 증권사** ■ 고객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합니다. 삼성증권 등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온라인 할인 증권사** ■ 디스카운트 브로커 **Discount Broker** 라고 부릅니다. 증권사 지점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연계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증권사입니다. 비교적 낮은 수수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대표적인 증권사로 현재 0.015%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증권사를 선택할 때는 주식매매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편리한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하세요.

수수료의 유혹

드디어 주식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차례입니다. 초보자들은 자신의 투자성향을 알고도 증권사 선택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증권사 선택 시 초보자들에게 가장 유혹적인 것은 수수료입니다.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들의 주식거래를 돕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일정한 거래수수를 내야만 합니다. 보통 증권사의 거래수수료는 0.024~0.5% 정도입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온라인 증권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에 위탁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위탁수수료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대금의 0.5%입니다.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0.024~0.15%로 훨씬 저렴합니다. 계산해볼까요? 1,000만 원을 매매했다면 오프라인으로는 5만 원, 온라인으로는 최대 1만 5,000원에서 최소 2,400원의 수료를 내게 되네요.

뒤에서 배울 선물, 옵션, ETF, ELW 등과 같은 파생상품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식을 매도할 때는 '위탁수수료 +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총 0.25%를 내야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거래 모두 같습니다.

일광 씨는 수수료 0.015%인 키움증권에서 총 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당 10만 원에 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가가 2배로, 즉 20만 원으로 올라서 50주를 모두 매도했습니다. 총 얼마의 거래비용이 들었을까요?

매수 시 : 위탁수수료=거래금액 500만 원×0.015%=750원
매도 시 : 위탁수수료=거래금액 1,000만원×0.015%=1,500원
증권거래세=1,000만원×0.25%=25,000원
총 2만 6,500원

따라서 주식매매에 든 수수료 및 거래세는 '750원+2만 6,500원'으로 총 2만 7,250원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증권사 간의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증권사에 처음 가입하는 투자자거나 이미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의 수수료가 부담스러웠던 투자자라면, 각 증권사의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단, 수수료는 변수가 많으니 수시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일수록 수수료에 끌려가기보다 증권사의 신용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초보자로서 금융기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일단은 믿을 만한 대형증권사에 찾아갑시다.

주식을 거래하는 4가지 방법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사고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매수라 하고 파는 것은 매도라고 합니다.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팔게 됩니다. 이때 주문은 증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증권사 지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는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점에 가면 주문을 하기 위한 주문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이름, 그리고 어떤 주식을 얼마에 몇 주 살 것인지 적어서 제출하면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점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계좌를 관리해줄 영업직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업직원으로부터 계좌관리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싶으면 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점을 이용하면 매매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둘째, ARS서비스를 이용해서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각 증권사마다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ARS

수수료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정확한 주식 수수료를 알고 싶다면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시스템 중 금융투자회사 수수료 비교를 찾아보면 각 증권사들의 매매수수료에 대해 일목요연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로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주문을 도와줍니다. 물론 ARS를 통해 주문뿐만 아니라 계좌잔고 조회 및 각종 질문이나 불편사항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RS를 이용할 때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셋째,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 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투자 도구입니다. 특히 HTS를 이용하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현재 최저수준의 HTS 수수료율은 0.015% 정도입니다.

HTS로 거래를 하면 낮은 수수료를 부담 없이 여긴 나머지 지나치게 많은 매매를 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매매회전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음을 기억해서 자신에게 맞는 매매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주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4,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핀테크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모바일 금융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전체 거래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클라우드펀딩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말합니다.

모바일기기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

바일기기를 통해 주식시세를 조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문까지 언제 어디서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증권사들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주식매매 수수료를 인하하여 HTS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HTS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계좌는 어떻게 만들까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둘째는 은행에 가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준비물과 절차를 살펴볼까요?

구분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할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거래인감(서명으로도 가능함)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인 경우)	-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거래인감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 본인의 거래인감 및 위임장 - 거래인감

- ① 증권사 창구직원에게 계좌를 개설한다고 말하면 몇 가지 서류를 줍니다. 계좌등록신청서와 투자목적기재서 등인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계좌개설이 끝납니다. 처음에 얼마를 넣어두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개설 시에는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 ② 계좌개설 시 몇 가지 약정에 대해 얘기해줄 것입니다. 그중 은행이체약정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현금을 입출금하고 싶을 때 증권사에 직접 나

가지 않고 전화나 HTS를 통해 자신에게 편리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 ③ 증권계좌는 개설 후에 통장을 주지 않고 증권카드를 줍니다. 증권카드는 증권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되니 나중을 위해 잘 간직해두세요.
- ④ 집에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HTS를 신청해야 합니다.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문용 계좌 비밀번호를 정한 뒤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위해 보안카드도 꼭 받아오세요.
- ⑤ 최근에는 증권사 영업점이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계좌개설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식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 있나요?

계좌를 만들 때 은행이체약정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주식계좌에 돈을 입출금하고 싶을 때 증권사 지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나 HTS를 통해 자신이 정한 은행계좌에서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CMA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지요?

CMA(Cash Management Account)란 증권사의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고금리상품이지요. 급여이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겸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할 때 CMA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각종 계좌들과 CMA계좌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특별히 투자되지 않고 노는 돈을 CMA에 이체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에 연계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CMA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주식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주식투자 어떻게 하나요?

HTS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HTS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집에서 손쉽게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IT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사람들은 손질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손질매매란 수산물 공판장 등에서 손을 이용해 경매를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의 거래입니다. 전산시스템이 발전한 이후 주식거래 체결은 전산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주문은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HTS의 등장으로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투자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뱅킹처럼 자신의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주식시세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저마다 HT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HTS가 바로 키움증권의 '번개'와 '영웅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키움증권의 대표적인 HTS인 영웅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HTS는 어떻게 설치하고 또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9년째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키움증권의 지난해 말 시장점유율은 13%에 달한다.

키움증권이 1위를 달리는 데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웅문'의 역할이 컸다. '영웅문'은 동시접속자 7만 7,000명, 일일접속자 12만 명을 자랑한다. 고객들이 '영웅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영웅문'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단순히 거래를 하고 투자정보를 보는 플랫폼이 아니라, 고객이 만들어 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HTS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고객의 소리(VOC) 미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에서부터 편리한 유저인터페이스(UI)까지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HTS를 수시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영웅문'은 버튼 위치 하나까지도 고객의 편의를 반영했다.

'키움증권, HTS '영웅문'으로 시장 평정'(아시아투데이 2014. 9. 24)

HTS를 다운 받으시다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HTS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받고 개설한 계좌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방금 회원가입하며 만든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 다운로드 화면

영웅문4

서비스 소개

영웅문4 랜덤 초 100% 활용법

이웃안내

장매시 조치사항

서비스 소개

온라인 매뉴얼

다운로드

영웅문4 도움말 다운로드(PDF)

한층 더 강화된 기능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웅문4

대한민국 대표 HTS 영웅문3의 축적된 KNOWHOW를 발전시킨 영웅문4로 더욱 편리한 기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투자자에서 전문 투자자까지 최상의 매매환경을 제공합니다.

매인화면

종합차트

제공환경

PC 프로그램 (WINDOWS XP 서비스팩2 이상)

가용가능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9, 10, 11

크롬 30 이상

파이어폭 24 이상

▼ 로그인 화면

타사대체입고 이벤트
2015.5.4(월)~2015.5.30(토)
키움증권 해외주식 고객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주식ETF 물기면 **신용금리 내리다!** 플러스 조건 충족시 추가 혜택까지

영웅문 | **모의투자**

고객 ID: *****
비밀번호:
인증비밀번호:

로그인 | **입금확장설정** | **종료**

☒ ID자동 | ☐ 전화인증 | ☒ 공인인증서 연결
공인인증센터 | ID/비밀번호 찾기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키움저축은행
주식투자보통 PLUS!
최대 4억원 & 차입 90만 원

New Channel K

회원가입 | 홈페이지 | 키움증권연계
증권사향 | 도움말 | 고객센터

주요지표
KOSPI: 2,120.85 ▲ 7.13 +0.34%
KOSDAQ: 706.79 ▲ 3.54 +0.50%
DOW JONES: 18,298.88 ▲ 28.32 +0.14%
NASDAQ: 5,078.44 ▲ 33.15 +0.65%
S&P500: 2,129.20 ▲ 6.47 +0.30%

주문번호 1544-4989 | ARS 1544-9900 | 해외주식 1544-9400 | 금융상담 1544-9100 | 키움증권센터 1544-9000 | **키움증권**

화면을 둘러볼까요? 로그인을 해서 HTS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메뉴들을 살펴봅시다. 화면만큼이나 많이 까딱하지요? 초보자들은 프로그램만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구 눌러보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 메뉴를 보면 기능, 주식, 주식주문, ELW, 신용/대출, 투자정보, 차트, 선물옵션, 선물/옵션주문, 채널K, SPECIAL, 펀드/금융상품, 해외주식, 온라인업무, 고객센터, 보기 등의 큰 메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 첫 화면

영웅문 | 키움증권센터 1544-9000 | 주문번호 1544-4989 | ARS 1544-9900 | 15/05/19 18:07:59

기능 | 주식 | 주식주문 | ELW | 신용/대출 | 투자정보 | 차트 | 선물옵션 | 선/옵션주문 | 채널K | SPECIAL | 펀드/금융상품 | 해외주식 | 온라인업무 | 고객센터 | 보기

주식 | 키움 | 주식 | 키움 | 관심 | 조건 | 종합 | 투자 | 오픈 | 종목 | 미니 | 호가 | 바로 | 계속 | 확인 | 15/05/19 18:07:59

주식 | 물바 | 주문 | 종합 | 현재 | 종목 | 검색 | 차트 | 일지 | 스터 | 토론 | 주문 | 주문 | 주문 | 주문 | 주문 | 주문

관심종목

KOSPI200	262.92	▲ 0.95	KOSPI 종합	2,120.85	▲ 7.13	KOSDAQ종합	706.79	▲ 3.54	개인	880	2	330	43	18	
KOSDAQ통락	▲506 (↑10)	46	E-S&P500	2,131.50	▲ 5.50	코스피투자자별	개인	0	외국인	754	334	2,237	31	12	공시
환율	₩/\$	1,088.10	S&P500선물	2,131.40		일일 최하를 상위	20종목-ELW...	18:07:58	거래소공시	기관	1,681	150	1,574	10	16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채널

- ① **주식:** 주식시세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주식주문:** 주식주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 ③ **ELW:** ELW의 시세 확인, 관련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LW는 6장에서 상세하게 배울 예정이니 그냥 눈여겨만 보세요.
- ④ **신용/대출:** 주식의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과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는 아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⑤ **투자정보:** 투자자별 매매동향과 프로그램매매동향,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리서치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차트:** 지수차트, 업종차트, 주식차트 등 각종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 ⑦ **선물옵션, 선/옵션주문:** 선물옵션과 관련된 시세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⑧ **채널K:**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증권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 ⑨ **SPECIAL:** 미니화면과 자동투자일지 등을 제공합니다.
- ⑩ **펀드/금융상품:** 펀드, ELF 등의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⑪ **해외주식:** 일본, 중국, 홍콩 등의 시장에 직접 주문할 수 있으며, 각국의 주식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⑫ **온라인업무:** 은행을 통한 입출금, 공모주 등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⑬ **고객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내와 모의투자대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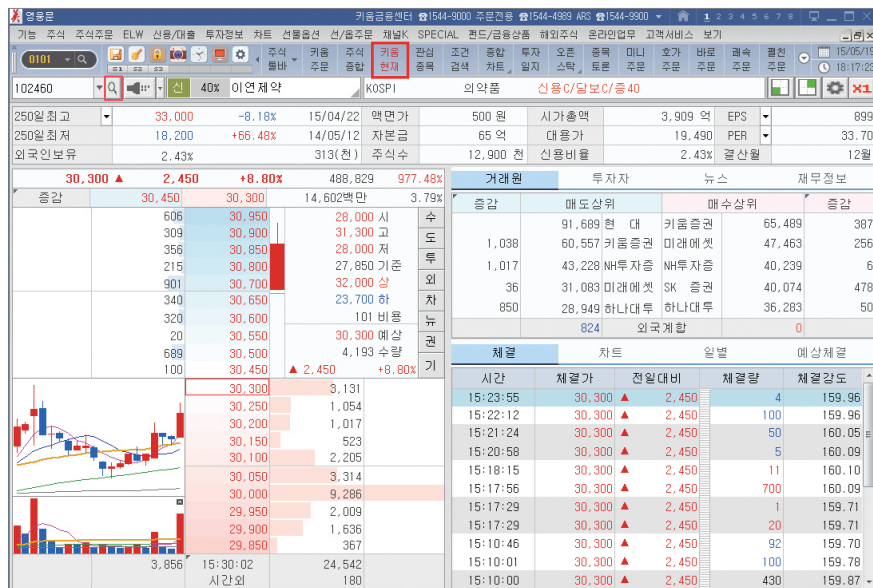
주식시세표를 살펴봅시다

주식투자자에게 시세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이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할 종목의 시세를 확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오름세인지 내림세인지, 아니면 지루하게 움직이는 상태인지 시세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매일매일의 시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추이를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주가는 대체로 업종별로, 또는 당시에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장의 중심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식시세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HTS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세가 제공됩니다. 먼저, 개별 종목의 시세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가 화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현재가 화면에서는 현재의 가격은 물론이고 어떤 증권사에서 매수 또는 매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로부터 주가추이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 → 키움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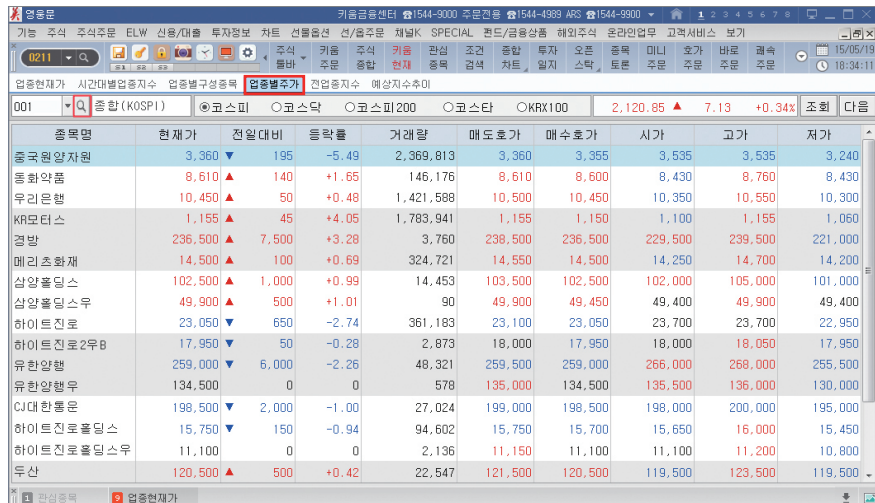
키움현재 메뉴를 클릭하면 아무런 숫자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기업명을 검색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가 화면이 나옵니다. 또한 업종별 시세와 업종 내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시세도 볼 수 있습니다.

영향범		KOSPI코스원전 (1544-3000) 주전종형 (1544-4389) ARS (1544-99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05/19																									
기능	주식	주식종목	ELW	신용/대출	투자정보	채권	신용등급	신/금융부문	채권K	SPECIAL	전도/금융상품	해외주식	증권/금융업	고객서비스	보거				15/05/19																								
02	[0101] 기술원전가 [0102] 기술원전가2 [1401] X-Ray 원전가 [0130] 관심종목 [0211] 금융원전가 [0200] 시장합성 [0147] 실험가/작한가 실시간 조작 [0160] 특이종목(T) [0180] 순위분석(T) 종목사세 종목검색 시세분석 순위분석 주식 X-Ray	주식 주전 종합 원전 종목 검색 원전 알기 스타 토론 주전 종목 원전 K																	15/05/19 18:28:44																								
[0104] 입점업체 - 전업종지수																																											
입점원전가												입점원전가			입점원전가			전업종지수																									
																		배상지수(주)																									
																		+대위 / 전주, 박원원																									
																		조회																									
																		자료																									
소지																																											
원전가 전업종지수																																											
1,000.00 ▲ 7.13																																											

[illegible]

같은 화면에서 [업종별주가]를 클릭하면 업종 내 종목별 시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하여 업종을 선택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 → 주식 → 업종시세 → 업종별주가



종목명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거래량	매도호가	매수호가	시가	고가	저가
중국원알자원	3,360	195	-5.49	2,369,813	3,360	3,355	3,535	3,535	3,240
동화약품	8,610	140	+1.65	146,176	8,610	8,600	8,430	8,760	8,430
우리은행	10,450	50	+0.48	1,421,588	10,500	10,450	10,350	10,550	10,300
KR모터스	1,155	45	+4.05	1,783,941	1,155	1,150	1,100	1,155	1,060
경방	236,500	7,500	+3.28	3,760	238,500	236,500	229,500	239,500	221,000
메리츠화재	14,500	100	+0.69	324,721	14,550	14,500	14,250	14,700	14,200
삼양홀딩스	102,500	1,000	+0.99	14,453	103,500	102,500	102,000	105,000	101,000
삼양홀딩스우	49,900	500	+1.01	90	49,900	49,450	49,400	49,900	49,400
하이트진로	23,050	650	-2.74	361,183	23,100	23,050	23,700	23,700	22,950
하이트진로2우B	17,950	50	-0.28	2,873	18,000	17,950	18,000	18,050	17,950
유한알켄	259,000	6,000	-2.26	48,321	259,500	259,000	266,000	268,000	255,500
유한알켄우	134,500	0	0	578	135,000	134,500	135,500	136,000	130,000
디대한통로	198,500	2,000	-1.00	27,024	199,000	198,500	198,000	200,000	195,000
하이트진로홀딩스	15,750	150	-0.94	94,602	15,750	15,700	15,650	16,000	15,450
하이트진로홀딩스우	11,100	0	0	2,136	11,150	11,100	11,100	11,200	10,800
두산	120,500	500	+0.42	22,547	121,500	120,500	119,500	123,500	119,500

테마별로도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테마는 각 증권사에서 구성해놓은 것으로 모든 증권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종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 홈 → 투자정보 → 테마종목 → 테마그룹별



테마명	종목수	상승	하락	상승비율	등락률	가산수익률	테마구성주요종목
주류	7	6	1	85.7%	4.67%	9.08%	진로발효, 한국알콜
바이오_유전체분석	3	3	0	100.0%	1.60%	7.58%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제과스낵	4	3	1	75.0%	0.62%	7.22%	농심, 오리온
바이오_물기세포치료제	3	2	1	66.7%	0.39%	7.06%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신약개발/기술수출	10	4	6	40.0%	1.82%	6.77%	메지온, 씨티씨바이오
환장품	10	4	6	40.0%	0.69%	5.89%	제너, 코스텍스비타민이
에너지메이선	4	2	1	50.0%	1.06%	5.56%	온온, 레드로버
의료기기_치아	5	2	3	40.0%	0.34%	5.30%	디오, 바텍
태양광_폴리실리콘	4	3	1	75.0%	6.10%	5.10%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
바이오_바이오시밀러/베터	6	3	3	50.0%	1.39%	4.89%	이수엘지스, 슈셀생명과학
바이오_디젤/에탄올	4	3	0	75.0%	1.79%	4.67%	SK에미칼, B메탄올

각 테마를 클릭하면 해당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화면은 주류 테마에 속한 종목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주류 테마는 현재 진로발효, 한국알콜, 풍국주정, 무학 등 7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4.67%의 테마 상승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주류 테마 세부 화면

종목명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거래량	매도호가	매도잔량	매수호가	매수잔량	기간수익률
진로발효	39,500	▲ 4400	+12.54%	83,907	39,500	1,785	39,200	1	14.83%
한국알콜	9,500	▲ 650	+7.34%	5,168,174	9,510	7,796	9,500	7,346	23.36%
풍국주정	12,350	▲ 650	+5.56%	147,091	12,350	2,091	12,300	1,666	2.92%
무학	45,450	▲ 2300	+5.33%	203,654	45,450	111	45,400	374	9.92%
국순당	7,470	▲ 220	+3.03%	261,203	7,500	1,339	7,470	458	2.47%
롯데칠성	2,753,000	▲ 45000	+1.66%	8,893	2,754,000	11	2,753,000	175	10.47%
하이트진로	23,050	▼ 650	-2.74%	361,183	23,100	413	23,050	5,606	0.43%



신문에서 주식시세표 확인하기

종합지든 경제지든 대부분의 일간신문에는 주식시세표가 있습니다. 이 시세표를 며칠만 봐도 대충 현재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문 시세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지수					종합지수(KRX100)					KOSPI200 231.53 (+0.59)					MKF500지수				
1,784.36					3,745.52					거래대금 6조815억 원					3,541.71				
+5.14(0.29%)					+11.21(0.30%)					상승 ▲ 405개 (↑ 9)					+11.56(0.33%)				
										하락 ▼ 400개 (↓ 19)									

종목명(코드번호)	종가	등락	거래량	고가	저가	52주 최고	52주 최저	종목명(코드번호)	종가	등락	거래량	고가	저가	52주 최고	52주 최저
일반종목															
어업·광업															
농림어업003580	7700	▽ 80	1211	7970	7580	11700	7540	국회입법002720 D	2830	▲ 30	1902	2950	2900	4115	2815
농림어업006040	122000	▽ 1000	329	123500	121500	136000	98500	국회입법002750	12150	▲ 100	103	12250	12000	13500	11150
농림어업007160	6150	▲ 110	1227	6170	6000	6880	4440	국회입법006280	155000	▲ 500	6297	156000	153500	178000	100500
산림어업003070	36600	▲ 1000	2952	36900	35300	38900	24000	국회입법009620 E	47000	▽ 200	3603	48500	46600	61000	40300
산림어업006090	13300	▲ 50	773	13500	13200	14150	8960	대통령직제003220 C	6580	▲ 50	1674	6680	6510	7330	4405
산림어업008700 C	12750	0	371	12850	12550	13550	11350	대통령직제002210 D	1785	▽ 35	26904	1880	1785	7425	1165
								대통령직제000540	132500	▽ 2000	665	136500	132500	138000	88500
								대통령직제000620 D	9810	▽ 80	2938	9120	9010	9010	4630
								대통령직제011780 C	3350	▽ 135	6582	3510	3350	5690	2950
								대통령직제003850 E	19250	▲ 2500	27500	19250	17150	23425	12000
								대통령직제003900 C	12000	50	10841	12100	11850	18800	11950
								산림어업001360	3340	▲ 40	430	3350	3220	3630	2775
								산림어업000520 D	5250	▽ 70	9920	5360	5240	8800	5250
								산림어업005580 D	11700	▽ 400	23358	12250	11650	16250	8970
								산림어업003060 C	1370	▲ 45	96374	1430	1350	3420	1000
								산림어업019170	29700	▲ 300	253	30100	29600	31800	21300
								신용보증019175	19550	▽ 3550	338	22500	15300	27700	12800
								신용보증003190 C	3820	▽ 25	48755	3700	3820	7290	3220
								신용보증003520 C	850	▽ 20	77626	890	850	1685	765
								신용보증002630 E	1900	▲ 15	58148	1020	980	2045	875
								신용보증004720 C	450	▲ 10	17278	460	440	1085	572
								신용보증003370 C	5530	▽ 70	2346	5590	5500	8350	5380
								신용보증013299 E	2988	▲ 1	3178	2990	2990	3178	1880

▲ 2010. 09. 10, 매일경제

먼저 각 지수의 등락이 정리되어 있고 각 업종별로 시세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종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종가**: 하루 중 마지막으로 끝난 시세입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날 상하한가 폭이 결정됩니다.
- ② **등락**: 하루 중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는 상승을, ▼는 하락을 나타냅니다.
- ③ **거래량**: 하루 중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형성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신문 시세표 뒷부분에는 액면가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액면가는 a: 100원, b: 200원, c: 500원, d: 1,000원, e: 2,500원으로 표시됩니다.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액면가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여야 하지요. 그중 5,000원이 기준인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이처럼 액면가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가의 크기를 가지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시세표에서 명문제약은 c가 붙어 있으면서 주가가 3,350원입니다. 즉,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5,000원짜리 액면가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33,500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액면가가 얼마인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HTS를 120% 활용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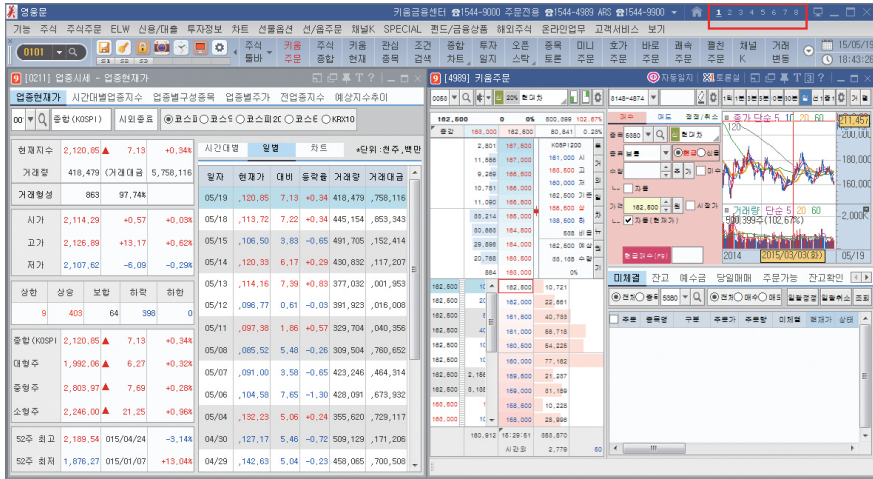
자신에게 맞는 화면을 만드세요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지만, 무기의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HTS는 단순히 주식을 매매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식투자에서 HTS는 각종 시세와 거래량, 기업정보 등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용법을 제대로 알수록 HTS는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게 최적화해놓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화면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놓기 위해 화면을 구성하는 법을 알아둡시다. HTS의 맨 우측 최상단에 보면 1에서 8까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각 번호대로 가상화면을 설정하여 8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1번은 주식과 관련된 창들을, 2번은 선물과 관련된 창들을 배치해놓음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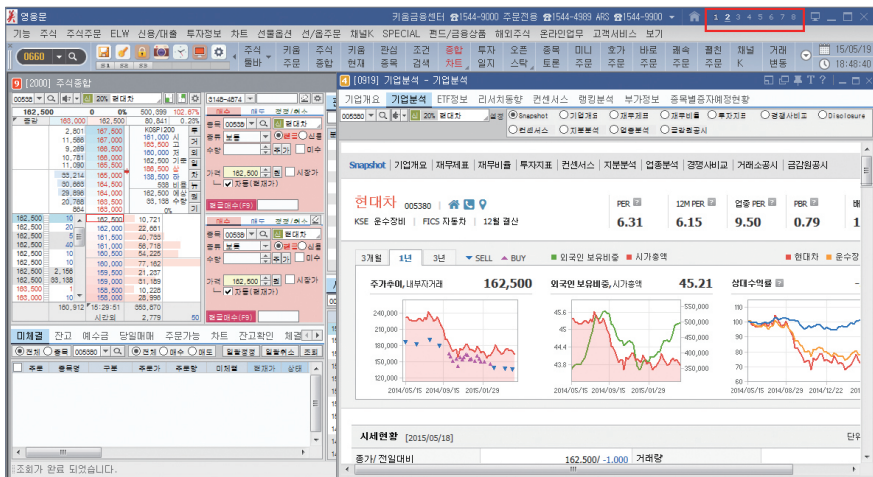
먼저 1의 화면에 다음과 같이 업종시세창과 주문창을 설정해봅시다.

▼ 가상화면 구성하기 1



이제 ①을 클릭할 때마다 바로 업종지세를 보고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상화면 구성하기 2



②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창을 화면 안에 배치해놓으면, ②를 누를 때마다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관심종목창 구성 방법은 4장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계좌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얼마를 넣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당장은 입금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 일단 비워두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주식매매를 시작하려면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계좌에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기회가 와서 주문을 했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타이밍인데 좋은 타이밍을 놓치고 마는 거죠. 매수하려고 주문한 수량의 총액보다 돈이 부족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틈틈이 계좌관리를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투자는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좌관리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요령을 익혀둬야 합니다. 우선, 투자원금을 모두 매수에 쓰지 말고 일정 금액은 꼭 현금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계좌에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좋은 종목이나 타이밍을 만났을 때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욕심을 내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원금을 넘어서기 때문에 투자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할 금융상품은 꼭 정해놓고 투자하세요. 초보자가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 욕심을 내면 십중팔구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식매매에 꾸준히 실전 연습을 한 후 자신의 투자 원칙이 확고하게 섰을 때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투자하고 싶더라도, 위험상품에는 5~10% 이내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수익이 생기면 그대로 계좌에 쌓아놓지 말고 다른 통장에 이체하세요. 자신의 초기 투자원금은 꼭 기억하고 초기의 일정 기간은 원금만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까지 투자원금에 합쳐지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관리를 잘해야 원금 보전이 잘되고 투자도 계속 신중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HTS에서는 **주식주문** → **계좌정보**에서 계좌의 예수금상세현황, 거래내역, 잔고 확인, 체결확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잔고확인을 통해 현재 수익률 현황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금 여부를 알아보고 싶을 때:** 홈 → **주식주문** → **계좌정보** → **예수금**에 들어가서 **예수금 및 미수금** 등을 자주 확인하세요.
-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입금을 하고 싶을 때:** 홈 → **온라인업무** → **은행연계입출**

예수금/미수금

예수금은 주식을 주문할 수 있는 돈을 말하고, 미수금은 주식을 사면서 증권사에 단기적으로 빌린 3일 안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금에 들어가서 자신의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주식주문** → **거래내역**에서는 주문체결내역과 은행이체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TS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data:

계좌번호		비밀번호		조회		다음	
매도정산할		0		매매일자		2015/05/18	
매수정산할		38,080		수도일자		2015/05/20	
종목명	거래구분	매매구분	체결수량	체결단가	약정금액		
	수수료	거래세	종목세		정산금액		
엑세스바이오	현금매수 K	매수	4	9,520	38,080		
		0	0		38,080		

At the bottom, it says: [100000]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식을 매도했는데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당일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광 씨가 오늘 돈을 쓸 일이 있어서 당장 급하게 주식을 매도했다고 칩시다. 현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계좌를 확인해보면 돈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을 매매하면 매수자는 계좌로 주식을 받고 대금을 결제해야 하고 매도자는 돈을 받고 주식을 결제해야 합니다. 이를 **수도결제**라고 합니다.

수도결제 날짜를 항상 유념하세요. 수도결제는 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매매를 해서 체결되면 금요일에 결제가 됩니다. 수도결제 날짜를 꼭 알아둬야 계좌관리가 쉽습니다. 모레 현금이 필요하다면 오늘 주식을 매도해야 모레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도결제는 3일째에 되지만, 매매는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매수를 하여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면 바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도에 대한 결제만 3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꼭 기억하고 계좌관리를 하면서 매매계획을 짜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HTS 살펴보기

HTS나 모바일기기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을 잘 활용하여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들여 전체적인 주가 동향을 살펴보세요. 정형화된 정보수집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순서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대략적인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외증시가 상승했는가, 하락했는가?

해외증시의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해외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은 우리나라에도 대체로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요국의 환율변동이 있는가?

주요국 환율변동을 통해 국제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알아봅니다. 국제자본시장에서 돈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가치를 올려주게 되므로 환율동향이 중요합니다.

유가 또는 금값과 같은 주요 상품가격의 등락은 어떠한가?

이러한 변수들도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원자재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경제상황에도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투자주체별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가?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통해 현재 주식시장에서 누가 수급을 주도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추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30개 종목은 무엇인가?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의 핵심 종목들입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많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시장의 인기종목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투자주체별로 순매수 대금이 많은 종목은 무엇인가?

각 주체별로 순매수 대금이 많은 종목을 10개씩 파악해보세요. 특히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사고판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이 어떤 것인지 쉽게 정리됩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주요 뉴스는?

투자정보를 통해서 오늘 주식시장을 움직인 주요 뉴스들은 무엇인지 3가지 정도 뽑아봅니다. 주식시장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 뉴스를 살피는 것은 상황을 단순화시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차트상에 지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차트를 통해 현재 지수의 움직임이 안정적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과열 상태이거나 지나치게 내려가 있는 침체 상태인지를 살펴보세요. 기술적 리듬에 따른 매매시점 포착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뒤에서 배울 프로그램매매 현황, 선물옵션의 투자주체별매매 현황 등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주식시장의 시간 구분, 매매원칙, 단일가매매제도

시간마다 주문이 다르다고요?

주식시장은 몇 시에 열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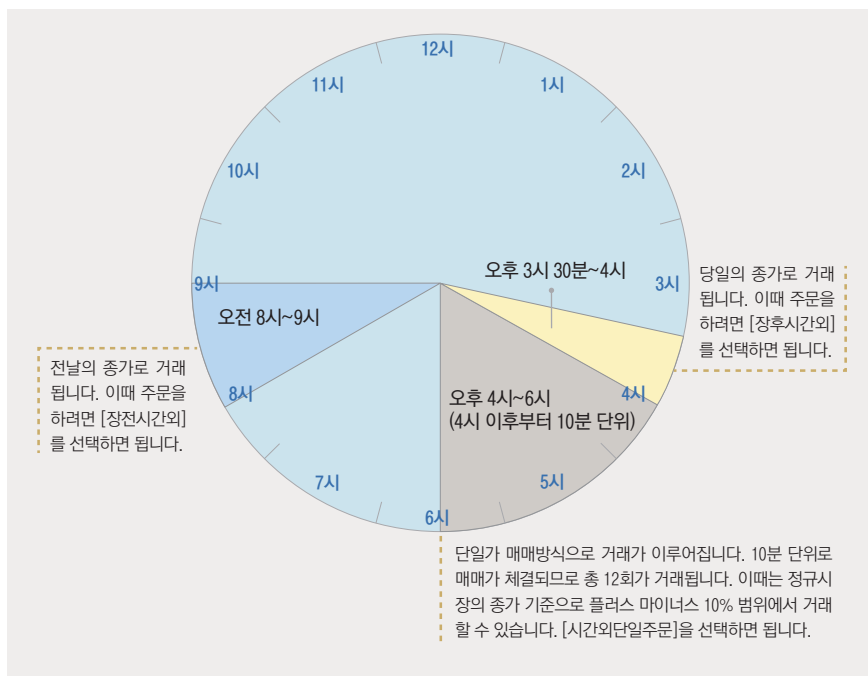
주식매매를 하기 전에 대부분 주문의 종류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매시간과 그에 따른 체결방법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시장별 매매시간

시장	시간
정규매매시장	09:00~15:30(단일가매매 : 시초가 결정 및 15:20~15:30)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시장	08:00~09:00(단, 장 개시 전 종가매매는 08:30~08:40)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시장	15:40~16:00
장 종료 후 시간외 단일가매매시장	16:00~18:00(10분 단위로 단일가 체결)

■ **정규시장** ■ 주식매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장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 정규매매시장입니다. 일반적인 주식매매는 이 시간에 이뤄집니다.

■ **시간외거래** ■ 주식시장에는 정규시장 외에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정규시간에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없는 투자자들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때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HTS 혹은 모바일을 이용해서 주문하면 됩니다. 시간외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가란 무엇일까?

뒤에서 배울 매매원칙 중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에 따라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라고도 합니다.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싸게 팔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높게 사려는 사람과 낮게 팔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체결해나가되, 체결가격은 매도와 매수가 합치되는 지점에서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을 시켜줍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단일가에 꼭 체결시키고 싶다면, 가장 높은 가격에 가장 먼저 주문을 하면 됩니다. 정규매매 중에도 9시에 시초가를 결정하기 위해, 또는 오후 3시 30분에 종가를 결정하기 위해 단일가매매를 합니다.



매매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실제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매매원칙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인과 고객이 일상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돈을 주고 사고 돈을 받고 팔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만약 단 둘만의 거래가 아니고 사람이 많아진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팔려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또는 사려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복잡해집니다. 더욱이 사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옵니다.

주식시장 역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많아 경쟁매매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을 호가라고 하는데, 매도자와 매수자들은 경쟁적으로 호가를 제시합니다. 이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가격우선 원칙** ■ 매수자는 가장 비싸게 사려는 자가 우선 체결되고 매도자는 가장 싸게 팔려는 자가 우선 체결됩니다. 즉, 매수주문이 빨리 체결되길 바란다면 매수가를 높게 불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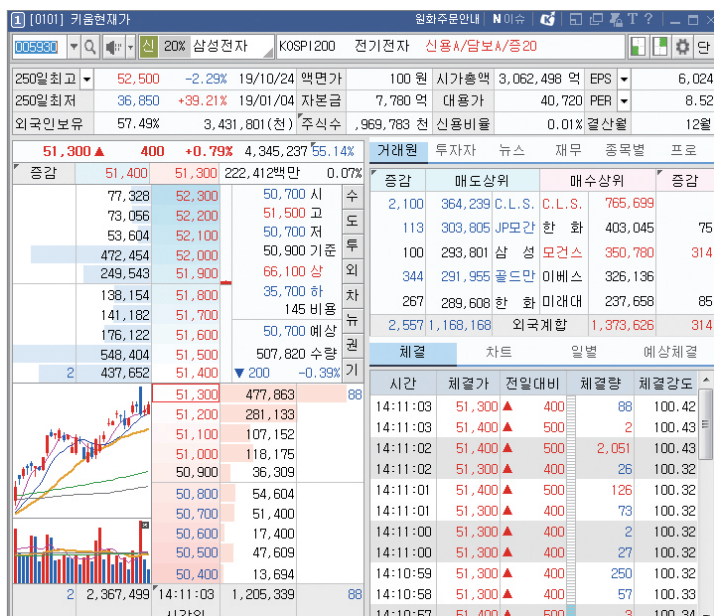
■ **시간우선 원칙** ■ 여러 사람이 같은 가격에 주문을 걸었다면, 시간상으로 먼저 주문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처럼 초단위로 시간 다툼을 벌일때는 스피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 **수량우선 원칙** ■ 가격도 같고 주문 시간도 같다면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한 사람이 더 먼저, 더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 즉, 소량주문보다 대량주문이 유리합니다.

■ 위탁자우선 원칙 ■ 이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계정을 알아야 합니다. 증권사에는 크게 2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기계정입니다. 위탁자우선 원칙이란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고 수량마저도 같을 경우 자기계정보다 위탁자, 즉 고객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HTS에서 매매원칙 살펴보기

삼성전자의 현재가 화면을 통해 매매원칙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가는 5만 1,300원입니다. 화면 왼쪽 부분이 주문이 들어온 내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금 매도 측에서는 5만 1,400원에 팔려는 사람을 최우선 매도호가라고 부르고, 매수 측에서는 5만 1,300원에 사려는 사람을 최우선 매수호가라고 부릅니다. 그

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5만 1,400에 팔려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사려는 사람은 5만 1,300원에 사려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현재 최우선 호가에 팔려는 주식수 43만 7,625주 중에서도 시간적으로 먼저 온 사람의 주문을 먼저 체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사려는 사람의 주식수는 47만 7,863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한 순서에 따라 체결을 시켜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밖에 수량우선이나 위탁자우선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합니다.)

단일가매매제도를 활용하세요

주식매매는 주로 정규매매시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종종 변수가 일어납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대형 호재나 악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정규매매시장 개장 전인 오전 8시부터 9시 사

단일가매매제도

과거에는 동시호가제도라고 불렀지만 2001년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면서 단일가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감 전인 오후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단일가매매제도**를 실시합니다. 단일가매매제도는 일단 가격우선 원칙과 수량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같은 가격이나 같은 수량이라면 시간우선 원칙을 따로 적용합니다. 단일가매매제도는 매매체결을 시키지 않고 주문을 먼저 받은 다음 단일가로 매매를 일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단일가매매제도는 정규매매시간에 투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직장인 투자자에게 편리합니다. 하지만 정규시간 중에 발생하는 매수나 매도에 따라 주문을 실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단기매매 성향의 투자자보다는 중장기매매 성향의 투자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주식초보의 든든한 파트너
한빛비즈 처음인데요 시리즈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2020년 완전개정판] : 투자전략편

역사상 최고의 주식 대가들에게 배우는
수익을 내는 실전 투자전략!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지금 당장 거장의 투자전략을 공부하라!

강병욱 지음 | 값 17,500원 | 400쪽

저는 기업분석이 처음인데요 [완전개정판]

이기는 주식투자의 기본 '좋은 종목' 고르는 법!
꼼꼼한 생초보의 기업분석 입문기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주식투자,
기업의 숫자를 읽으면 투자할 종목이 보인다!

강병욱 지음 | 값 18,500원 | 424쪽

저는 차트분석이 처음인데요 [최신개정판]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차트분석으로 매매타이밍을 찾는 비법을 알려준다!

주식매매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어려운 차트가 절로 풀리는 차트분석 비법!

강병욱 지음 | 값 18,500원 | 344쪽

강병욱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 한화증권, ING 베어링스 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Ubion 경영연구소 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전문교수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하우투스탁과 K채널의 대표강사 및 MC이기도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자산관리 강의를 하였고, KBS <실속TV 주부경제학> 증권전문강사, 한국경제 와우TV <재미있는 증권교실>, <생방송 개미천국>, <My Fn Manager>, <증시최전선-뉴욕과 서울>, <한밤의 증시카페> 등 다수 프로그램 진행.

TV Seoul <생방송 서울> 경제해설위원, Metro Seoul <주간 증시 전망대> 기고, WOW-Pass 금융교육원에서 자산관리업무 및 파생상품 강의 등 증권업무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시장과 투자에 대한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튼튼한 지식과 마인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투자전략편》, 《저는 기업 분석이 처음인데요》, 《저는 차트분석이 처음인데요》, 《행복한 투자자》, 《강병욱의 전략적 주식투자》, 《내 사주에 재물이 있을까?》 등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입문 장기 베스트셀러

별책부록 **핵심산업 & 주요기업 300**

재테크의 정석은 역시 주식투자!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초보 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주식입문서!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

강병욱 지음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매품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샘플북